

6·25전쟁 50주년 국방학술회의 열려

통일 대비 선진국군 건설에 국내외 공감대 형성



국방 대학교는 4월 27일에서 28일까지 양일간 프라자호텔에서 「6·25 전쟁과 한반도 평화」란 주제로 국방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전쟁의 회고를 통한 반성과 전쟁 유산에 대한 극복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선진국군 건설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금번 학술회의에는 3명의 국내학자와 미국(4명), 일본(1명), 러시아(1명), 독일(1명) 등 8명의 외국학자 총 11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각각의 발표에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는 4월 27일과 28일 양일 5부의 주제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부 「6·25전쟁 발발원인과 전개과정」에서는 나종일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소진철 원광대 교수가 「6·25 전쟁 발발 원인을 재조명」하고, 윌리엄 스투익 미국 조지

아대 교수가 「미국 및 유엔측의 전쟁수행」을, 지난 천 미국 남일리노이대 교수가 「중공 및 공산측의 전쟁수행」에 대해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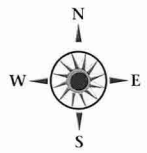
-제 2 부 「한국전쟁의 회고와 교훈」에서는 홍성태 전략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온창일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한국 전쟁수행 분석을 통한 교훈」을 도출하고, 제임스 메트레이 미국 뉴멕시코주립대 교수가 「한국전쟁시의 휴전회담과정 분석을 통해 정전체제 성립과정」을 살펴보았다.

-제 3 부 「6·25전쟁 유산의 극복방안」에서는 유세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정치, 경제, 사회부문으로 구분하여, 바딤 트카첸코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장이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이질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시게무라 도시미츄 일본 탁스크대 교수가 「이질적 경제체제의 극복방안」에 대해, 그리고 하이너 뮐러만 독일 쾰른대 교수가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 4 부 「정전체제를 넘어서」는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의 사회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져,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남북한의 정책」을 분석하고, 스크트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국대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을, 추수룡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 5 부 「종합토의」는 황병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발표자와 토론자를 포함한 학술회의의 참여자 전체가 참여하여 학술회의의 성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학술회의를 마친 다음 날인 29일에는 외국인 학



자를 대상으로 전쟁기념관 및 제3땅굴에 대한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조성태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방학술회의 마지막 날 만찬사를 통해 “평화는 평화를 지킬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역사의 교훈처럼,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햇볕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하고, “한반도가 정전체제를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터전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민족과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의 바람이자 6·25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2000 육군 발전 심포지엄 개최

「21세기 육군의 역할」을 주제로

육군 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종합 고찰하고 미래 육군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육군발전 심포지엄을 지난 5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21세기 육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장성 50여명을 포함한 300여명의 고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1세기에 있어서 육군의 역할 및 기능을 모색하고 대응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논문 발표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홍성태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박상섭 서울대 교수는 「한국에서의 군의 역할 변화 평가」라는 주제발표로 한국군의 성장과정과 역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남북의 긴장완화과정에서 정신무장 강화 및 전문집단으로서 군대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두승 서울대 교수는 「21세기의 군과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민군관계에 대해 ①군의 직업적 수월성(秀越性), ②보편성과 특수성, ③ 사회적 대표성, ④민군간 유기적 연계, ⑤사회통합의 장(場)으로서의 군 등 5가지의 문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서 이상우 서강대 교수는 「21세기 육군의 구조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21세기 새로운 전장환경에 부합되는



군 구조, 전쟁수행방식과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호재 조선일보 부국장, 박영규 통일연구원 박사, 양병기 청주대 교수, 장달중 서울대 교수, 신정현 경희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일차인 4일에는 사회자와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지역 안보현장 방문과 포병 및 전차 부대 훈련참관, 신형장비 및 부대견학 등을 실시하여 정보화·과학화된 군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새로운 21세기의 '최강의 정예육군 건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육군 정책개발 과제를 도출하고, 민·학·군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규모의 이번 심포지엄을 계획한 육군은 이를 연례적인 행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해군, 제8회 함상토론회 개최

「제2의 장보고 시대 역할 모색」을 주제로 토론

해군 은 지난 5월 19일 한국, 중국, 일본의 민간 학자, 군인, 학계 및 언론인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제8회 함상토론회'를 열어,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위한 21세기 한국해군의 해양안보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이고, 당시의 향로를 탐사하는 해상체험을 통해서 장보고를 바다에서 만나는 행사를 가졌다.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태왕함 위에서 김문경 숭실대 인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함상토론회는 신라때 동남아 일대의 해상교통로를 완전히 장악하여 해상무역을 통해 부국(富國)을 꿈꾸었던 장보고(張保皋)의 해양개척정신과 해양활동을 재평가하고, '제2의 장보고 시대'를 대비한 한국해군의 역할과 해군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참가자들의 발표, 토론, 질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해군과 참석자들은 해양활동을 통해 부강한 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보고 시대가 증명하듯이 자유로운 해상교역을 보장할 수 있는 해상통제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대양해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

을 같이 하였다.

'92년 제1회 함상토론회는 미국에서 도입한 구형 구축함(DD, 강원함)에서 시작하여, 수송함(LST, 고준봉함), 군수지원함(AOE, 천지함)을 거쳐, 이번 제8회 토론회는 국내 건조 1번함인 광개토태왕함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형근 목포 해양대 교수는 「청해진과 장보고 대사의 해양경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이면서도 해양에 대한 역사가 없고, 역사의 중심이 육지였다고 지적하면서, 장보고 대사의 도전정신, 미래 예측능력, 화합과 개방정신, 문화애호 정신을 역설하면서 해상왕 장보고를 9세기 시대의 대표적 신지식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장보고 시대에는 우리 신라가 당나라 연안의 廣洲로부터 남지나해를 지나 싱가포르·말라카 해협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와 인도를 거쳐 인도양, 페르시아만의 아랍국가,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이르는 광대한 해상항로를 개척할 정도로 국운이 번창했으나, 해양경영에 무지한 당시 신라

왕실이 골품제에 집착한 나머지 해상세력을 견제함으로써 우리의 해상 제해권은 물론 수세기 후, 동북아 무역권마저 중국과 일본에 고스란히 넘겨 주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국가의 통치자와 국민이 적극적인 해양경영 사상을 가질 때 만이 국운 번창을 보장한다는 역사적 반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제의 토론자로는 일본의 하마다코사쿠 九州대학 교수와 한국의 김주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이 나와서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의 왕지에 대련 해사대학 교수는 「7~9세기 중·한간의 해양관리정책으로부





터 본 21세기 중·한 해운 협작의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천여년전의 당나라와 신라와의 우호적인 무역과 항해 활동은 동아시아 문명의 유산으로서 오늘날의 한·중 해운 협작의 문화적, 역사적 공동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당시 당나라 조정은 해적방어, 해상 운송 항로의 안전, 동 아시아 각국과 당과의 통상교류 보호차원에서 신라와의 해양 협력 활동을 중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왕지에 교수는 “신라와 당나라간의 원활한 교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관방 경제무역, 민간경제무역으로 나누어 활

발히 진행된 무역은 장소, 무역 품목과 수량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와 함께 수출입금지 품목 지정, 무역허가증 발급, 상선 검사와 등록은 물론 수출입제한 물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활발한 무역활동이 이루어 졌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1천년전 장보고의 해상활동 등의 한·중간의 우호적인 교류와 항해활동은 오늘날의 한·중간의 해양과 해운협력에 대해 풍부하고도 깊은 깨우침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제의 토론자로는 김덕수 군산대 사회과학대 교수, 김태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와서 의견을 나누었다.

일본의 하마다코사쿠 구주대학 교수는 「신라말기 해상 패자(覇者):장보고 등의 해상활동」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장보고를 제거하여 청해진을 폐지하는 것이 신라왕권의 강화책이라고 판단한 당시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설명하며, “장보고의 강력한 해상세력이 장기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장보고 암살을 계기로 해체된 것은 해상세력으로서 내륙과의 상호보완성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상활동의 배경에는 확고한 광역(廣域)의 내륙활동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 해상활동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하나의 예”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제의 토론자로는 장영준 해양수산부 장보고 기획



▲ 만재 3900톤급으로 최고 30노트 속력의 광개토태왕함

단 팀장,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나와서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허 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상교통로와 해상왕 장보고」라는 주제발표에서, 우선 장보고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분석의 기준을 해양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을 전제하고, “1, 2차 세계대전의 승전과 패전의 원인을 해상교통로 확보, 즉 제해권”이라고 말하고, “특히 한국전쟁에서 미군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군부는 해상수송과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현대사가 1천 2백년을 거슬러 올라가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무관치 않으며, 장보고의 활동 자체가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허 교수는 ‘해상왕 장보고’의 해상세력의 특성을 요약하면서 “장보고 해상무역은 종합상사적인 기능과 다국적 기업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청해진은 신라, 당나라, 일본 등 당시 3국에 설치된 다른 진의 연안방어적인 성격과는 달리 대양진출의 전진기지”였고 “장보고의 청해진은 황해의 시 파워(Sea Power)를 장악”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이 주제의 토론자로는 중국의 왕지에 교수와 이서향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나와서 의견을 나누었다.